

안녕하세요,

상هی웅은 2025년 마지막 달, 전시 《Calendar》를 개최합니다.

19세기 독일에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하루에 하나씩 초를 켜거나 작은 종이문을 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. 이는 훗날 '어드벤처 캘린더(Advent Calendar)'의 기원이 되었습니다.

《Calendar》는 이 전통을 전시장 안의 구조로 옮겨옵니다. 24개의 칸, 그리고 24개의 열림. 전시 기간 동안 하루에 하나의 작업이 공개되고, 디스플레이의 전체는 마지막 날에 완성됩니다.

이번 전시는 하루를 전시의 최소 단위로 삼고, 그 단위들이 쌓여 어떻게 구조를 형성하는지 관찰하고자 합니다. 특정한 서사를 제시하기보다, 전시가 구성되는 방식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합니다.

올 한해 상هی웅은 여러 작가들과 함께 다양한 전시를 진행하였습니다. 전시는 늘 짧은 순간에 열리고 닫히지만, 그 시간들이 쌓여 만들어낸 관계와 기억은 우리가 다음 해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됩니다.

이번 전시는 그 모든 시간을 차분히 정리하고,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하루하루의 기록입니다.

이 편지는 상هی웅의 전시를 찾아와 주신 분들, 그리고 멀리서도 응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합니다.

상هی웅의 한 해를 함께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.

상هی웅 드림